

북한 아동잡지의 체제와 아동 글쓰기의 이데올로기 내면화 경향 연구*

— 김정은 시대의 정기간행물 『아동문학』(2014~2017년)을 중심으로 —

박종순**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매월 발행되는 『아동문학』의 체제를 살펴 잡지의 구성에서 보이는 아동 교육적 의의와 특징을 미래담론과 연관하여 알아보고, 아동문학 작품이 아동의 글쓰기로 이어지는 양상, 그리고 아동 글짓기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경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은 아동들에게 “아동문단을 장식해가고 있는 우리의 나 어린 문학동아들”이라 부르며 문학가가 되는 길을 가르친다. 또한 생활 경험을 잘 잡아서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쓸 것, 그리고 성찰할 것 등을 강조하여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충정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의 본질을 안고 있는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는 작품 전반을 흐르는 주체문예이론으로 아동문학 전반을 규정하며, 아동에게 생활 속의 사상적 알맹이를 시대정신에 맞게 쓸 것을 강조한다.

아동 글쓰기를 통해 내면화되는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는 먼저 지도자의 이미지를 상징화해나가는 수령형상의 문학으로 다져진다.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는 주체의 태양으로, 해님으로 상징되며, 해님:꽃의 도식이 작가에서 아동에게 그대로 이어 나타난다. 그리고 소년단원들의 성적증을 내세우는 교육열은 집단주의정신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어린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7S1A5B5A07062257)

** 창원대학교, girincho64p@hanmail.net

들에게 늘 강조되는 집단주의를 종자로, 학급 반과 학교 동무들 모두가 5점꽃을 피울 수 있기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작품에 등장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탄도미사일 성공에 대한 자긍심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조롱으로 연결되고 있다.

■ 주제어 : 『아동문학』, 김정은, 주체사상, 종자론, 집단주의, 수령 형상, 내면화, 정치이데올로기

목차

- | | |
|--------------------------------|-----------------------------|
| 1. 서론 | 3. 아동 글쓰기에 내면화된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 |
| 2. 중앙기관지 『아동문학』의 구성과 아동 참여의 실태 | 1) 최고지도자 이미지의 상징화 |
| 1) 『아동문학』의 구성과 체제 | 2) 종자론과 계급적 교양의 장 |
| 2) 『아동문학』 잡지의 독자대상과 생산층 | 3) 소년단원들의 성적증, 집단주의정신 |
| | 4)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 과학기술의 발전 |
| | 4.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북한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매월 발행되는 잡지 『아동문학』의 체제를 살펴 잡지의 구성에서 보이는 아동 교육적 의의와 특징을 미래담론과 연관하여 알아보고, 아동문학 작품이 아동의 글쓰기로 이어지는 양상, 그리고 아동 글짓기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경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김정은 정권 이후 특히 후대사랑, 미래사랑 담론을 형성하며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작가가 생산하는 문학작품이 아동에게 내면화되고, 그것은 또 아동이 직접 쓰는 작품으로 연결되어 영속화 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제기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특히 “다른 사업에서는 우리 세대가 다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후대들이 보충할 수 있지만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잘 하지 못하면 그것은 누가 보충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¹는 의미에서 후대사랑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혁명은 세대의 교체 속에 계속되며 혁명의 계승은 자라는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다. 북한에서 미래의 희망인 아동에 대한 관심이 어떤 담론을 형성하며 문학작품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이 연구는 북한의 아동 교육과 문학교육의 목적을 분석하는 일이 될 것이며,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김일성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공산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 품모와 자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다는”(『조선문학』 1977.10),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육성 해나가야 할 문학의 책무를 강조한다. 그리고 북한의 교육목적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북한 헌법 제43조-이영미 2006, 252면)으로 양성하는 데 있다. 교과목의 대부분도 정치사상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매개는 ‘아동문학’으로 포괄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북한에서 아동문학은 아동의 정치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인 것이다.

학제 외의 『아동문학』은 관제지로서 광범위하게 간접적으로 정치사상 교육을 실천하는 문화적 장으로 역할한다. 이 잡지에는 아동문학 작가의 작품을 비롯하여 주체사상, 최고지도자의 문학예술이론, 그리고 작가들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해설」, 『아동문학』 2015년 1월호, 43면(이후 『아동문학』 잡지에서 인용하는 글은 본문에 ‘년-월’에 대한 정보만 붙이기로 한다. 그리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되도록 잡지 그대로 옮겨 쓴다.)

이 지상강좌 형식으로 쓰는 문학교실, 아동 작품에 대한 선평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아동 교육의 장을 만든다. 일반문학보다 더욱 치열하게 사회주의 교육학에 기반한 능동적 무기로서 사상교육에 매진하려는 것이 아동문학의 핵심적 역할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성인문학작가가 쓰는 작품과 작가예비지망생 격인 고등중학교 학생의 작품, 그리고 아동의 작품까지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법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청년들과 아동들은 우리의 교대자들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후대교양문제는 곧 혁명의 장래문제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대들을 옳게 교양해야만 그들을 혁명위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 수 있으며 우리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 수 있습니다.²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은 후대교양문제로 북한의 문학 활동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북한에서는 분단 이후 아동에 대한 교육에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을 통해서 담론을 형성하며 선전선동의 심리적 관리를 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문학은 체제문학이면서 선전교양에 충실한 목적문학이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유통하는 방식이 관을 주도로 한 기관지 형식이었고, 그 과정에 당과 최고지도자의 논리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내면화해나가는 기제로 작동해왔던 것이다. 이는 향후 남북 아동의 정서적 이질화에 따른 혼란을 가중할 것이므로 그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는 일은 남북한 교과뿐 아니라 문화 향유에서 통합을 꾀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2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29~30면.

김정은 시대 이후 아동문학과 아동교육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헌의 동향과 장르 인식, 그리고 교육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마성은(2014)이 김정은 시대 북한 아동문학의 동향을 아동잡지에 나타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살폈으며, 박태상(2015)과 김성수(2014) 등은 김정은 시대 이후 유일영도체계의 확립, 그리고 북한 문학의 동향과 전망을 각각 다루었다. 그리고 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2015)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 과정, 교과서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으며, 이영미(2012)는 북한의 아동문학과 그 교육의 실체를 살펴 남북한 통합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김경희(2017)는 북한 그림책에 나타난 인재상과 형상화 방법을, 최윤정(2018)은 북한 그림책 장르 인식의 문제를 논하였으며, 박종순(2016)은 북한이 문학 작품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품성과 지도력, 특히 애민정신과 후대사랑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논문에서는 북한의 아동문학 작품이 어린이에게 어떻게 읽히고, 그것이 내면화 되어 그들의 작품으로 얼마나 재생산 되는지를 다루지는 않았다. 또한 아동을 ‘문학동아’로 지칭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당에 충실한 작품을 생산하도록 지도하는 가운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데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중앙위원회 기관지를 통해 아동들에게 아동문학 작품을 감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역시 적극적인 창작자가 되도록 지도하며 당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인간형으로 편입시키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아동문학의 양상과 아동글짓기의 관계를 아동 글쓰기에 대한 감상지도와 아동글짓기 발표의 장을 통해 고찰하고, 그 과정에 마주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영향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는 문학이라는 매개를 활용하여 아동을 선전 선동하고 사상을 확립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 있다고 한 김일성의 어록을 실천하는 지점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특히 아동문학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이 문학작품을 읽을 때 거슬러 따져 읽기보다 맹목적으로 따라 읽는 경향이 많으므로 그 과정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며 학습되기 때문이다.

기관지 『아동문학』에 나타나는 문학창작의 목적과 아동 글짓기로 이어지는 잡지의 기능을 살펴 북한 아동문학의 실질적 지형을 파악하는 본 논의가 향후 남북 통합의 과정에 제도적, 문화적, 심리적 차이까지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중앙기관지 『아동문학』의 구성과 아동 참여의 실태

1) 『아동문학』의 구성과 체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아동문학』은 북한 소년학생들을 위한 문학전문 월간 잡지이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양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학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잡지의 영향은 클 수 있다. 『아동문학』은 근로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문학』, 전문작가와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한 전문 문학잡지인 『조선문학』 등과 함께 3대 문학잡지 중의 하나이다. 1947년 7월 창간되었으며, 4x6배판에 64쪽으로 발간되고 있다. 처음에는 어린이신문사에서 발간되었으나 이듬해에 ‘문화전선사’, 1951년 이후에는 ‘문학예술사’ ‘문예총출판사’

‘작가동맹출판사’ 등으로 발행처를 옮겼다. 초기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다가 1968년 4월부터 2년간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1992년부터 지금까지 ‘문학예술출판사’에서 매월 발행되고 있다.³

북한에서는 “『아동문학』의 중요한 사명은 어린이들과 소년단원들이 아동소설, 동요, 동시, 동화, 우화와 같은 문학작품을 많이 읽게 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교양하자는 데” 있으며, “그들을 주체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을 기본사명”⁴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아동문학』에는 단편소설, 중편소설, 연재소설, 수필, 동요, 동시, 동화, 우화, 유년동화 등을 비롯하여 전문작가, 문학통신원(아마추어 작가), 소년 학생들의 응모작 등으로 꾸며져 있다. 주요 독자는 아동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들과 학생소년들, 문학통신원들로 짐작할 수 있다. 발행 부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책방에서 자유판매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관련 작가 등과 북한의 소학교와 중학교들에만 제한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효순은 아동문학 창간 10주년을 기리는 자리에서 “아동들을 계급식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적 집단정신으로 훈련하며 노동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며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불타는 심정으로 아동들을 교양하는 것은 우리 아동 문학 앞에 나선 초미의 과업”⁵임을 강조하였다. 아동이란 존재의 특수성에 걸맞게 아동 수준에서 문학과 예술을 향유할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을 북한식 사회

3 《北韓》(북한연구소, 2006년 6월호) 참조.

4 『조선대백과사전』26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5 강효순, 「《아동문학》 창간 열 돌을 맞으며」, 《문학신문》, 평양문학·문학신문사, 1957.7.18.

주의 체제에 필요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교양과 계몽의 대상으로 삼았고, 아동문학을 그 수단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영미(2012)의 논의에 서처럼 『아동문학』이 당시 체제 내의 교육이었던 ‘학제 내 교육’과 함께 ‘학제 외 교양’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문학』의 ‘차례’ 제일 앞부분에는 매 호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해설”, “주체문학의 대강”이 실린 페이지를 먼저 안내한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는 김정은 어록을 박스처리해서 넣어둔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호에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실이고 의지입니다”라는 글이 실려 있다. 표지 안쪽 면에는 그 달에 어울리는 어린이 노래 악보가 실린다.

『아동문학』은 제호마다 전체 주제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의 생일이 있는 2월에는 “영원한 우리 해님 노래 불러요” “뜻깊은 광명절 노래 불러요” 등을, 김일성의 생일이 있는 4월에는 “태양절은 영원한 봄명절” “영원해요 우리 태양절” 등을, 6.25전쟁이 있었던 6월에는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를, 광복절이 있는 8월엔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 조국해방 일흔돛 만세!”를, 9.9절이 있는 9월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념원 꽃핀 강산에 공화국기 펄펄”을, 노동당 창건일이 있는 10월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 만세!”, “승리의 경축광장에 우리도 척척척” 등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백두절세위인들의 업적 길이 빛나요” 등을 앞세우고 특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작가와 독자가 함께

쓰는 글 페이지를 마련한다.

운문 영역에는 가사, 송시, 서사시, 동시, 동시초(동시묶음), 동요, 기행련시, 련시, 그리고 악보도 실린다. 송시는 앞쪽에 김정일이 쓴 작품 다음 차례에 대부분 실린다. 산문에는 단편소설, 장편 연속 소설, 수필(작가, 학생), 동화, 연속동화, 우화(학생이 쓴 것이 많다.), 유년기문학, 방문기, 우화소설, 수기 등으로 표기한다.⁶ 우화 작품들은 주로 생활의 교훈을 주기 위한 글이며, ‘라선시 학생문학소조원들의 글작품 중에서’(2015-12)처럼 특집란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 외에 유모아, 수수께끼, 조선속담, 상식, 어휘수첩, 독자편지, 단상(학생글), 그림(연필화, 선전화), 혁명가요, 문예상식, 일기 등을 실어 재미를 주고 있다.

문학교실도 중요하게 다루는데, 예를 들어 2015년 1월호에서는 <아동시 창작에서 의인화수법의 효과적 리용>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5월호에서는 <우리모두 재미나는 동화를 써보자요(1)>라는 제목으로 작가들이 쓰는데, 대부분 서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어린 동무들”을 부르며 시작한다. 동화란 어떤 글인가를 먼저 알리며 의인화수법으로 쓴다는 점, 고운 마음을 키우도록 교양한다는 점, 환상의 수법을 쓴다는 점 등을 들며 앞날의 동화작가가 될 꿈을 키우며 작품을 많이 읽기를 권한다. 그리고 “학생작품과 작품지도평”, “학생 작품”, “독자 편지”, “편지글”, “아동일기”, “<우리교실> 글짓기”, “편집부의 말” 등으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읽을거리를

6 최근 몇 년간 『아동문학』에 실린 작품 앞에 표기되는 장르를 정리하면, 동화, 동화시, 동시, 동요, 풍자동요, 송가, 동시초, 아동극, 단편소설, 연속소설, 유년동화, 유년소설, 재담소설, 우화, 전래동화, 수필, 서사시, 기행련시, 고전소설, 동화극, 오체르크(실화문학), 벽소설, 사화, 아동영화문학, 방문기, 편지 등이 있다. 아동문학평론 장르는 『아동문학』에 없다. 아동의 글에 대한 평가 창작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 호마다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전문 평은 『아동문학』에 실리지 않고 『조선문학』에 게재된다. 아동 읽기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풍성하게 하고 있다. 특히 1980년부터 “글짓기 교실”로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는 김정일의 본보기 동시 제목을 따라 “우리교실 글짓기”로 발표되는 코너는 아동의 동시를 중심으로 아동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2) 『아동문학』 잡지의 독자대상과 생산층

『아동문학』에서는 학생들이 쓴 시에 대해 ‘동시’라 표기하며, “꼬마 시인”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한다. 북한 아동문학에서는 장르를 크게 분류하여 동화, 우화, 아동소설, 동요, 동시로 나누었다.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동문학작품은 유년기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소년기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청년시기로 넘어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이한 연령층의 어린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심을 잘 살리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⁷고 하였으며, 『아동문학』 2015년 4월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동문학의 독자대상은 다른아닌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있는 고등중학교와 인민학교 학생과 유치원생이다.”고 밝혀두었다. 실제 고등중학교 4, 5, 6학년 학생들도 창작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유치원생, 인민학교 어린이, 그리고 고등중학교 낮은학년과 높은학년까지,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도 창작과 독자층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아동문학에서 ‘아동’⁸이라는 개념은 유년기, 아동기, 소년소녀기 등 학령기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7 최길상, 『주체문학의 새경지』, 1991, 242면(이영미, 2006, 234면.)

8 1950년대 북한에서는 아동 시기를 “출생 후 만 1세까지를 영아기, 만 1세부터 만 2세까지 탁아소기, 만 3세로부터 만 6~7세까지를 유치원기, 만 7세로부터 11~12세를 인민 학교기, 만 12~15세를 초중기, 만 15~18세를 고중기”로, 만 17~18세에서 23~24세를 성인기”로 구분하였다.(《문학신문》, 평양문학신문사, 1957.8.8.)

평양연극영화종합대학 실장 김택성이 쓴 글 중에 “특히 《아동문학》 잡지는 자기들의 학습과 생활과정에 직접 체험하고 느낀 끝없는 긍지와 사랑을 노래하여 전국작지의 학생소년들이 직접 창작한 작품들을 많이 신는 것이 참으로 좋고 재미납니다. 그리하여 어제와 같았지만 오늘도 작가, 기자를 비롯한 문필가들, 문학애호가들과 창작의 첫걸음을 떼는 꼬마작가들의 친근한 벗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저 역시 자식가진 아버지이고 또 내 나라의 영화예술을 당당히 떠메고나갈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자이지만 어린시절에는 바로 이 《아동문학》 잡지와 함께 문학의 첫걸음을 떼는 사람입니다.”⁹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글에서 그들은 작가, 기자, 문필가들, 문학애호가들을 비롯하여 어린이들까지 창작자로 인정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마다 전국아동문학상 시상 모임¹⁰ 소식이 실리는데, 참가자들이 어린이들이며, 수상자도 성인 작가가 아니라 어린이 작가들이다. <작품지도평>에서도 “아동문단을 장식해가고 있는 우리의 나 어린 문학동이들”, “그들이 창작한 아동문학작품”(2016-1)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 아동 글쓰기는 생활을 지도하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문예, 아동문학가로서의 자질을 갖게 하려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문학』이 아동 독자의 사상성과 집단주의 정신 등을 문학과 생활의 접목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뜻은 최고지도자의 어록이나 주체사상에

9 <우리는 《아동문학》을 사랑합니다>(독자편지:2017-7)

10 <제19차 전국아동문학상시상모임이 있었다>(2017-7: 이 글의 첫 문장은 “문학을 지향하는 전국의 꼬마문학가동무들”로 시작, “전국각지의 재능있는 문학동이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이 모임은 1954년 김정일이 아동문학편집부를 방문하였던 일을 기념하는 뜻으로 4월 26일에 전국의 “문학동이들”과 모임을 해왔다. “주체문학의 바통을 이어나갈 계승자들로 역세게 자라나고 있는” 참가자들은 며칠간 평양견학- 작가들과의 만남- 토론으로 이어지는 시상식 행사에 참여한다.

대한 해설, 그리고 아동문학 작품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2015년 2월호에서 “아동문학에서는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린이들의 높은 조직성과 집단주의정신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집단의 힘이 얼마나 크며 집단과 동무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가 하는 것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직생활에 모범인 참된 소년단원의 본모기를 형상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실어 아동 생활의 기본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 인용하는 작품을 보더라도 『아동문학』이 얼마나 아동들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해바라기꽃속에/ 우리 모습 새겨진/ 재미나는 《아동문학》/ 너도나도 찾는
책// 장군님 친히 쓰신/ 명작의 구절구절/ 해님만 따르는/ 충정의 마음 키워주
고요// 우리 생활 펼쳐놓은/ 재미나는 소설은/ 지덕체로 준비해가는/ 우리들의
길동무이지요// 아름다운 맘 키워주는/ 동화도 정말정말 재미나요/ 꽃피는 우리
생활/ 노래하는 동시는야 정말 좋아요// 참말로 《아동문학》은요/ 원수님만 따
르는/ 우리 맘 자래우는/ 해바라기동산이지요(<해바라기동산>, 라홍소학교 지
현:2017-7)

이러한 뜻은 아동 일기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이달에도 《아동문학》 잡지를 보는 첫 독자의 자리를 남에게 빼앗아봐 어제오늘 몇 번씩이나 미래원¹¹을 찾아왔는지 모른다.” “우리들의 웃음이 되고 교과서가 되고 많은 상식과 지혜를 주는 참다운 벗”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우리모두의 마음을 적은 기록장”(2017-7)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린

11 <北, 시군 도서관 이름은 ‘미래원’> 《노컷뉴스》 2015-01-25.

이들이 이 잡지의 독자층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들 독자들은 독자모임도 구성하여 공부하는데, “《아동문학》에 실리는 동시들과 학생작품지도 평, 《문학교실》 등이 말없는 스승으로 되어주었”(2017-12)다거나, “문학을 지향하고 앞날의 작가, 기자를 비롯한 문필가로 되려는 우리”라고 자랑스러워한다. 또한 아동독자들이 작품 속 주인공 아이의 문학 학습방법과 자세를 따라 배우고자 하는 이야기도 전한다.

3. 아동 글쓰기에 내면화된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동문학』에서는 매 호마다 “주체문학의 대강(북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이 실리는데, 그 내용을 해설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수령님이 제일가는 분이시고 우리 당이 제일 위대한 당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형상화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아직 세계관화, 인생관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아동문학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수령님이 제일가는 분이시고 우리 당이 제일 위대한 당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형상화하여야하며 항일혁명투쟁시기 장군님을 따라 용감하게 싸운 아동단원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용감하게 싸운 소년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된 참된 소년단원들의 생동한 전형을 창조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그 모습을 마음의 거울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문학에서는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린이들의 높은 조직성과 집단주의정신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집단의 힘이 얼마나 크며 집단과 동무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가 하는 것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직생활에 모범인 참된 소년단원의 본모습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주체문학의 대강>:2017-5)

위 인용부분을 보면 북한의 아동문학에서는 먼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실감 있게 형상화하는 수령형상문학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령을 향한 충직성을 담보한 소년단원들의 전형을 창조하여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동문학의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 조직생활의 모범이 되는 본모습을 형상적으로 보여 집단주의정신을 기르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이러한 점은 잡지 전체를 흐르는 사상이므로 이에 따라 몇 가지 주제로 아동 작품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1) 최고지도자 이미지의 상징화

북한 아동문학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찬양되고 있다. 2016년 가을, 북한 북부지역에 대규모 침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김정은이 현지도 한 일에 대해 여러 차례 찬양되고 있다. 당시 조선중앙방송에서도 김정은이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물고기 등 식료품과 학용품, 담요를 선물하고, 학생들을 최신시설이 갖춰진 강원도 원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보냈다고 보도하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고 선전한 바

있다.¹² 7017년 1월호 『아동문학』에서도 “세상이여 우리를 부러워하라”라는 제목의 동시초 안에 <아, 우리 아버지!>, <따뜻한 바다> 등 7편의 동시가 집체작으로 실리는데, 이 동시들은 모두 북부피해지역 어린이들에게 김정은이 내린 혜택을 찬양한 것이다. “무너졌던 집이랑 우리 학교랑/ 더 멋있게 우뚝 세워주시고/ 사랑의 꽃수레에 우리를 태워/ 송도원의 야영소로 불러주신 원수님”(<아, 우리 아버지!>)이라 칭송하고, 야영소에 간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떠나올 땐 야영소 큰집이 기다리더니/ 돌아갈 땐 멋들어진 새 집이 기다려주니”(<기다리는 집>)라고 노래하며, “내 나라 꽃동산의 밝고밝은 해님이신/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원수님 따르는 해바라기되여/ 충정의 꽃바다를 펼치여가립니다”(<우리 행복 꽃피우신 아버지원수님께>)라는 시들로 김정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다.

위의 동시초에 대해 손일훈 작가는 평론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속에서 사회주의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진실하고 감동깊게 노래하고 있다.”¹³고 평했다. 그리고 “진실성의 문제도 아동문학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는 김정일의 이론을 언급하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낸 북부 피해지역 아이들의 눈물겨운 화폭속에서 태양만을 따르며 해바라기로 살 우리 어린이들의 충정의 마음”을 절절히 노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태양(해님):꽃(해바라기)”의 도식은 북한 작가들이 아동문학 작품을 쓰는 데 있어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것을 줄고(2016)에서 밝힌 바 있다. 잡지에는 작가들의 문학작품뿐 아니라 아동 독자가 쓴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도식이 이어지며 정치이데올로기는 영속화 되고 있다.

12 <수해지역에 선물만 퍼주는 김정은, 방문은 언제?>, 데일리안 2016.10.29

13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진실한 동심적 형상>(<조선문학> 2018년 6월호 45면)

달나라 별나라에도 없는 꽃궁전인 육아원, 애육원은 원수가 안겨준 사랑이니 별도 달도 부러워한다거나(<달도 별도 부럽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대동강에 우뚝 솟아 온 세상을 굽어보니 원수의 사랑에 떠받들려 하늘에서 사는 아이(<하늘에서 사는 아이>)라는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 한편 작가는 지도 평을 통해 인공지구위성이 날고 초고층 아파트가 솟구치는 꿈만 같은 현실을 사는 아이들에게 하늘은 결코 먼 상상의 세계만이 아니라는 말을 해준다. 그리고 그런 것 모두 “하늘의 별도 따라 주실” 원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강조한다.(<저 하늘에 비낀 동심의 세계>:2016-5)

전문 작가들이 쓰는 작품에서는 수령이 해님처럼 아동에게 사랑을 주어 아동은 꽃과 같이 행복하게 자란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아버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랑동이”(〈문학교실>:2017-5)가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한다. 이러한 도식은 아동이 쓰는 작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해쫂는 아침마다/우리 가는 학교길에/ 대원수님들 태양상/ 환하게 모셔져있지요// 아이들을 왕이라/ 불러주신 대원수님들/ 사랑의 한품에/ 우리모두 안아주셔요// 5점맞은 학습장도/ 보아주시고/ 붓글솜씨 내 자랑도/ 들어주셔요// 아, 영원한 해님이신/ 대원수님들 우리러/ 우리모두 날마다/ 인사드려요”(〈인사드려요>:2017-7: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린 학생소년들의 글작품집 중에서’에 실린 고급중학교 소학반 학생의 글)

원수를 태양으로, 아이들을 왕이라 칭하는 점, 5점꽃을 가슴에 안고 원수를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 등이 이 동시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북한 아동문학 작품 전반을 흐르는 기조다. “최우등 영예 안고/ 학교의 자랑되

면/ 원수님 뵈올가”하고, “글짓기 잘 하여 꼬마시인 어서 되어 신문에 적 나면 원수님을 뵈올가”하고 기대하는 아동의 모습(<날 만나주실거야>: 2016-1) 역시 아동의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이다. 소학교 학생 작품(<영원한 품이랍니다>:2017-1)에서도 “해빛같이 환하신/ 원수님미소”, “온 세상 밝히는/ 태양의 그 모습같아”, “끝없는 그 사랑은/ 우리모두 안겨사는/ 영원한 품이랍니다”라고 노래한다.

잡지의 매 호마다 <문학교실>을 통하여 ‘어린 시인동무들’에게 문학 적 글쓰기를 가르친다. ‘아동시에서의 언어형상’(2016-2)이라는 제목의 지상강좌는 근대부터 우리 아동잡지에서 늘 편집되었던 지상강좌와 비슷한 형식을 띤다. 그러나 그 예를 든 작품에서는 “원수님 내 머리/쓸어주신 담부터/그냥 그냥 쓱쓱/크는것 같애”라는 언어 표현은 “원수님의 품에 가장 가까이 안겨사는 우리 아이들의 친근한 정서가 흠뻑 풍기는 언어”라고 칭찬하며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학교/찾으셨던/원수님이 생각나” 그리움에 눈물짓는 아이의 글을 보고도 “원수님에 대한 가장 친근한 정서로 안겨온”다고 평하고 있다. 이처럼 최고지도자에 대한 형상화에서는 “따뜻한 정서로 물들여진 언어”, 그리고 “친근한 정서가 흠뻑 풍기는 언어”를 강조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멋진 공전을 안겨준 지도자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량만과 희열’에 넘치는 언어를 써서 기쁨과 환희가 줄줄이 이어지게 하고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친다. 그래야만 원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생기발랄하고 명랑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그대로이신”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히려 하는 점도 두드러진다. 《로동신문》 2011년 12월 23일자에서 “우리들은 주체혁

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운명으로, 찬란한 향도의 태양으로 굳게 믿고”라는 표현이 쓰였으며, 2012년 5월 22일자 《로동신문》에서도 “세계의 태양은 바로 김정은동지이다.”라는 글이 실렸던 것에서 김정은을 태양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교진¹⁴은 2014년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으며, 2016년 들어 북한사회 전 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폭넓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고 《로동신문》에서는 단골용어가 되었음을 밝혔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수령과 관련해서 내세운 용어는 ‘수령복’, ‘선대 수령님들’, ‘위대한 수령님들’ 등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선대 수령님들’을 자주 부르다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수령님’을 떠올리게 되어, 김정은을 ‘현재 수령’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축포야회(불꽃놀이), CNC(컴퓨터수치제어) 기계들, 인공위성발사, 열병식, 탱크와 전투기 동원의 군사훈련’ 등의 장면과 함께 ‘발걸음’의 가사가 소개되기도 하였다.¹⁵ 김정은은 령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 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노래 불리고 있다. 이지순이 《로동신문》에 수록된 가사를 조사한 연구에서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과 똑같이 <우리 원수님>이라는 진정에 넘친 부름과 더불어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것”¹⁶으로 표현됨을 밝히고 있는

14 정교진, 「북한 정권의 ‘지도자상징정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7. 181~189참조.

15 이에 대해서는 마성은(2014), 박종순(2016), 정교진(2017)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있다.

16 이지순, 「로동신문 수록 가사의 김정은 체제 이미지 연구」, 『세계북한학술대회 2015』 2, 북한학연구학회, 2015. 260면.

것을 보면,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태양으로, 수령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그 미소/ 꼭같으실가요/ 어쩌면 그 음성/ 꼭같으실가요// 아이들을
나라의 보배/ 왕이라 하시며/ 소년궁전 야영소도/ 곳곳마다 세워주시고// 새 교
복과 꽃가방/ 민들레학습장/ 모두모두 안겨주신/ 아버지원수님// 그 영상 우리
르면/ 꽃봉오리 내가 고와/ 찾아오신 대원수님들/ 뵈옵는 것 같아요// 자애로운
모습도 그 음성도/ 안겨주시는 그 사랑도/ 어쩌면 대원수님들과/ 꼭같으세요”
(삼천군 삼천소학교 손향심:2017-7)

김정은이 정치의 일선에 등장하면서부터 김일성 아바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대로이신”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그것이 문학작품에 그대로 드러나고, 이어서 아동이 쓴 작품에서도 위의 인용 글처럼 그대로 이어진다. 2017년 4월호 “학생작품과 지도평”에는 아동이 쓴 동시 <세상 으뜸 별천지>와 <만경봉의 꽃무지개>를 평하며,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버림받던 장천땅에 사랑의 첫 자욱을 찍으신 분은 다름아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농장을 새 세기 본보기농장으로 꾸리시려고 아낌없는 정과 사랑을 돌려주시”니 “황홀한 장천마을이 일떠섰”다고 칭송한다.

최고지도자의 이미지 상징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강조된다. 『조선대백과사전』(19권, 2000)에 의하면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은 다 주체사상에 포괄시켜야 한다.”(343면) 주체사상교양에는 당 정책교양과 혁명전통 교양,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 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주체형 인간은 인민과 당과 수령은 하나라는 논리에 의해 ‘수령에 충실한 혁명전사’를 키우는 것이다.¹⁷ 아동들 역시 독자편지를 통해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드러내 보이며 사회주의 강국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뜻을 펼쳐 보인다. <하나를 배워도 산지식으로>(2017·4)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으로 되어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사회주의 강국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라고 하여 소설을 읽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우리교실 글짓기에 실린 아동의 동시에서는 오동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도 해님 같은 김정은원수님을 생각한다. “찬바람 눈보라/ 다 막 아주고/ 푸른 꿈 안겨준/ 땅이 고마워// (...) 나를 안아 따듯이/ 키워주는 품/ 당을 위해 나도야/ 오동나무꽃처럼 필래요”(2017·4)라는 표현으로 원수님에 대한 사랑은 당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며 화자 스스로도 꽃처럼 피는 미래의 재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2) 종자론과 계급적 교양의 장

북한은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은 다 주체사상에 포괄시켜야 한다.”¹⁸고 하여 주체사상이 모든 이데올로기 학습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것은 아동문학 작품 창작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7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2호, 163면 참조.

18 『조선대백과사전』 19권, 백과사전출판사, 2000, 343면.

특히 김정일은 문학작품의 창작에서 ‘주체사상’이라는 단일 종자¹⁹를 상정하였는데, 문예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종자’를 옳게 틀어쥐지 못하면 작품의 형상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상적 알맹이’를 찾기 위한 창작과 창조의 원리로써 종자론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예술이라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종자는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라고 하였다. 소재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보장하는 ‘생활소재’를 의미하며, 주제는 종자를 골라잡은 이후에 종자가 발아하여 나타나는 문제의식을 말한다. 사상은 종자를 바탕으로 소재라는 도구와 주제라는 문제의식의 형상창조를 통해 그 깊이에 담겨있는 ‘철학적’을 말한다.²⁰ 『아동문학』에서 ‘문학동인’들에게 작가들이 강조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사상성이며, 그것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모두 재미나는 동화를 써보자요(2)>(2017-6)라는 제목의 문학 지상강좌에서 성인작가의 동화작품을 예로 들어 종자와 구성에 대해 설명한 후 학생들이 쓴 작품에 대하여 평하고 있다. ‘모두가 화목하게 사는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종자’를 심고 있는 <구슬목걸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원수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종자’를 심고 있는 <해님을 찾아간 아이>, 이 두 편의 동화를 중심으로, 종자들은 다 우리 생활에서 찾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의

19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다.”(김정일, 『영화예술론』, 1973)

20 장용철, 「김정일의 ‘종자론’과 주체사상 ‘종자’화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12권 제2호(2016) 10~12면 참조.

생활에서 종자를 찾을 때 중요한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따라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반영한 종자, 읽어보는 동무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종자를 찾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강성조선의 주인공들인 우리 어린이들의 아름답고 씩씩한 모습을 담아야 하는데, 먼저 종자를 찾고 난 후 이야기를 엮어갈 글감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이어서 작가는 어린 학생의 글을 읽고 평하는 글(「글감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2016-2)에서 “자기의 생활속에서, 자기 주위의 동무들속에서” 글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푸른 잔디밭을 가꾸는 소재의 글에서 작가는 그러한 아동의 행동이 결국은 “내 조국 빛내갈 큰 마음이 자리잡는”일이라고 강조하며, 자기 학교와 교실을 깨끗이 청소한 것을 시로 쓴 아동에 대하여도 “자기의 교실을 알뜰히 거두는 그 마음이 자라서 애국의 큰 마음이 된다”고 평한다. 이것은 자신의 생활속에서 글감을 잡아 그 마음을 표현하였으니 그 마음이 진실하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글을 쓴 아동이나 독자에게 ‘김정일애국주의’를 키우는 일이 된다는 것, 즉 작품의 ‘종자’도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글을 쓰는 아동에게 ‘생활을 보는 눈’을 자주 강조한다. <평양 갔던 할머니>, <꿈>(2016-3) 두 편의 작품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문명의 거리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로 새집들이한 삼촌네 집에 갔다온 할머니의 이야기속에서 꿈나라에 갔다온 것만 같다는 알맹이를 찾아낸 것이라든가, 애육원에 찾아오신 원수님을 뵈온 꿈을 꾸 생활을 가지고 꿈에서라도 아버지원수님을 뵈올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생각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목소리는 다 생활감정의 본질을 정확히 본 것”이라고 평한다.

그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아동시에도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어머니네 분조의 애기염소들을 아침마다 꼭꼭 세여보며 기뻐하는 꼬마동생의 모습과 그것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세계를 재미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늘어나는 농장살림>:2017-5), 그리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며 금메달을 연방 쟁취함으로써 체육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실현해가고 있는 우리 체육인들의 미더운 모습을 체육을 사랑하는 어느 한 가정의 저녁시간을 통해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금메달소식>:2017-5)을 들어 칭찬한 것이다. 경제강국, 체육강국을 건설할 ‘원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생활 속 주인공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였으며, 그것이 시대정신으로 나타나 감동을 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학생작품과 작품지도평”(2017-1)을 통해서도 평자는 생활의 본질, 시대정신을 강조한다. 창작을 하는 방법으로 생활의 본질을 작품 속에 담아야 하며, 시대정신을 표현함으로써 충정의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편의 아동 작품과 김철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여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 ① “원수님말씀 받들어가는/ 우리 마음 모이고모여/5점꽃밭 되었지/ 웃음꽃밭 펼쳤지”(성동고급중학교 리원학, <꽃밭 되었지> 마지막 연)
- ② “내 사랑하는 필갑은요/ 최우등고지 향하여/ 달랑달랑 달려가는/ 딱친구들 사는 집이지”(룡악소학교 김일식, <딱친구들 사는 집> 부분)
- ③ “아버지원수님만 높이 모시면/ 백번천번 큰물이 밀려온대도/ 그 언제나 더 큰 행복 찾아옵니다/ 집집마다 더 큰 기쁨 꽃피납니다// 내 나라 꽃동산의 밝고밝은 해님이신/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원수님 따르는

해바라기되어/ 충정의 꽃바다를 펼쳐여가립니다”(김철, <우리 행복 꽃펴
주신 아버지원수님께-북변땅아이들이 올리는 편지> 마지막 부분)

학생이 쓴 ①과 ② 동시에 대하여 평자는 “자기 생활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그 속에서 동심적인 시상을 잡은 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사랑과 공감을 받는 작품”이라고 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생활의 알맹이, 즉 작품의 종자를 찾아주는 습관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 “작품에 종자가 없으면 그것은 생활 라렬에 그치고” 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①의 동시가 5점을 맞고 기뻐하는 교실 안의 정경이 동심적으로 안겨오지 않고 5점꽃발을 가꿔온 주인공과 동무들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아서 마지막 절구가 설명으로 안겨오며, ②의 동시 역시 필갑이라는 딱친구가 있다는 전제만 주었을 뿐 어떻게 딱친구 관계가 되었는지 밝히지 못한 점, 밤늦도록 주인을 도와 함께 밤을 새운 연필, 힘든 수학문제의 답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주인을 위해 안타까이 속삭였을 분도기 등에 대해 형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다보니 작품이 감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작품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에 대한 충실성 등을 절실하게 나타내지 않아 충정이 깊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한다.

한편 ③의 동시는 큰물 피해를 입은 지역의 아이들을 화자로 한 동시인데, 때 연마다 ‘원수님’을 거론하였으며, 마지막 두 개 연에서는 ‘아버지원수님’, ‘해님이신 우리의 아버지’만 있으면 언제든 행복이 찾아오고 꽃바다가 펼쳐지니 그 충정의 마음은 끝없이 드높다고 표현한다. 심지어 큰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아동 화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원수님’이 보내온 손길에 기뻐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정의 마

음이 생활 속에서 절실하게 우리나라오도록 종자를 심어야 하며, 그것은 시대정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친다.

3) 소년단원들의 성적증, 집단주의정신

북한에서는 인민학교 2학년이 되면 모든 어린이는 소년단에 가입, “소년단원들은 당의 참된 소년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는 전투적 구호를 외친다.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이 위대하고 조국이 위대함을 잘 알아야 커서도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 수 있다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²¹ 『아동문학』에서 5점꼴 성적에 관한 작품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성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학급, 학교 등을 단위로 집단의 성적증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 “학생들의 성적증에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이 먼저 그려진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온 나라 아이들의 가슴속에 언제나 울리고 있어”라는 김정일의 말은 거의 매호마다 실리고 있다.

2017년 5월호에 실린 ‘벽소설’²² <새 목표>는 락랑구역 정백소학교 학생이 쓴 작품이다. 소학교 학생이 쓴 글을 벽소설이란 장르로 게재한 것도 흥미롭다. 도 학과 경연에 나가 1등을 하고 돌아온 송희가 경연에서 2등 한 아이가 자기보다 더 많은 참고서와 상식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

21 유정갑, 「북한의 주체사상과 정치사회화의 실태 및 전망」, 『철학탐구』 제12집, 196~197면 참조.

22 북한문단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학 장르의 일종으로서 단편소설보다 내용과 형식이 짧은 형태의 소설이다. 분량으로 보면 콩트(掌篇)에 속할 정도지만 활용면에서 크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 분야의 벽시(壁詩)와 대칭되는 이름이다. 벽소설(壁小說)이란 그 명칭과 같이 대자보처럼 벽보로 읽혀지거나 혹은 출판물에 실리기도 하는 소설이다. 그러므로 일반 노동계층의 계몽이나 교양에 필요한 북한 사회에서 이런 장르를 자주 활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문학사전, 1995. 참조)

고 돌아오자마자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려 한다. 축하해주러 찾아간 정아 역시 그 마음을 알고 같이 도서관으로 찾아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도 “우리 소년단원들의 성적증에 먼저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이 그려지게 된다.”고 한 수령의 말에 따라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소학교 학생의 의지를 계몽과 교양에 내세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급 동무들은 늘 경쟁 속에 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 학급에서는 수학문제풀이경쟁을 조직하고 한 주일에 한번씩 누가 더 많은 문제를 풀었는가를 총화하군 한다.”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량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목표를 점령해갈테야!”(「경쟁」:2016-4)처럼 공부를 두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그것은 “강성부흥 꽃동산/ 주인될 마음안고/ 5점꽃만 가득찬/ 5점꽃가방(<5점꽃 책가방>:2017-5)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또한 직장에서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늘 숙제부터 확인하고, 아이는 “원수님 현지도하신 곳 빨간 별 붙이고/ 하루숙제 책임기 알아맞히기 다한걸/ 참고서 문제풀이 벌써 다한걸/ 최우등 경험토론준비까지 다한걸”이라고 자랑스럽게 답한다. 그제야 어머니 아버지는 만족한다.(「별써 다 세운걸>:2017-5)

2016년부터는 ‘12년제 꽃대문’, ‘소나무 책가방’과 ‘민들레학습장’이 작가와 아동의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도했다”(2016.4.9. 조선중앙통신)는 보도와 관련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장 이름을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셨다”며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연간 생산능력이 5000만관에 달하는 현대적인 학습장공장을 일떠세우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2012년 무렵 의무교육을 11년제에서 12년제로 늘리는 등 체제 지탱을 위한 차세대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의 공장 신설은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시찰 현장에서 “당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공장”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① 소년단 제8차대회에서/ 원수님 하신 연설/ 심장마다 구절구절/ 새겨온 우리// 서로 돕고 이끌어/ 열심히 공부하니/ 우리 학급 교실엔/ 5점꽃만 방실(<5점꽃교실> 부분, 랑천초급중학교 로일강: 2017-9)
- ② 민들레학습장에/ 수학문제 풀 때면/ 5점꽃 방실방실/ 피어웃어요//원수님의 그 사랑/ 가슴에 안고/ 방긋방긋 5점꽃만/ 피워갈래요(<웃는 학습장> 부분, 남산초급중학교 리광혁:2016-9)
- ③ 새하얀 종이우에/ 사각사각 글을 쓰면/ 5점꽃만 방실방실/ 피어나지요// (...)원수님 보내주신/ 사랑의 학습장/ 야 정말 좋아요/ 민들레학습장(<야! 민들레학습장> 부분, 백운소학교 윤다영:2016-9)

위에 인용한 세 작품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다른 학생이 쓴 동시인데 내용은 거의 같다. 이 외에도 비슷한 작품이 2016년 이후에 매 호마다 들어있다. 2016년 9월호 ‘학생작품과 작품지도평’에서 작가 리경명은 <하나의 대상을 두고>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님같은 사랑속에 멋쟁이 민들레학습장공장이 세워지고 새로 만든 학습장들이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에 실려 온 나라 아이들에게 안겨지자 전국의 학생소년들속에서는 민들레학습장을 노래한 동요, 동시가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하나같이 민들레학습장이 5점꽃으로 피어 웃고 있다는 표현을 쏟아낸다.

북한의 학교에서는 공산주의 도덕의 주요한 덕목인 집단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²³라고 하여 집단주의정신을 강조한다. 『아동문학』의 작품들 역시 집단주의정신을 지키는 가운데 당과 수령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6월호 “학생작품과 작품지도평”에서 언급된 두 작품, <커만 가는 꿈>, <우리 분단 자랑>에서는 학과 경연 1등을 위해 학급 동무의 학습을 도와주어 최우등 분단이 되게 한 아이에게 “넌 꼭 앞날의 과학자가 될 거야”, “넌 꼭 훌륭한 선생님 될 거야”라고 격려해주고, “오손도손 서로 도와 문제를 풀어서 최우등생분단영예 떨친 거예요”라고 자랑한다. 함께 최우등분단을 만든 집단 중심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두 작품을 통해 ‘나’에서 나아가 ‘우리’라는 의식으로 일등을 향해가는 그 정신을 종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떨어진 동무들/ 서로서로 도와주며/ 최우등생모습/ 자랑많은 동무들//
 라위한 좋은 일/ 눈사태에 묻혔던/ 나무들도 구원한/ 불같은 그 마음//
 아셨는지/ 온 나라에 소개하겠다고/ 우리 학교 찾아온/ 기자선생님// 모습도 하

23 『정치용어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569면)에서는 집단주의를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더욱 귀중히 여기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사상, 공산주의 도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5집2호, 172면.)

나 마음도 하나/ 모범분단 우리 모습/ 렌즈에 담아/ 찰칵 했어요(<찰칵 했어요>, 전진고급중학교 초급반 박송옥:2017-6)

혼자 우등생이 되는 것보다 뒤떨어진 동무를 도와 다 함께 우등생이 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하는 집단주의 정신, 그 모습을 알리고자 기자가 찾아온 이야기다. 이렇게 집단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미담을 알려져 긍정적 감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작품을 뽑은 뜻일 게다. 집단의 사상성을 강조하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늘 강조되는 집단주의를 종자로, 학급반과 학교 동무들 모두가 5점꽃을 피울 수 있기를 자랑으로 삼는다. 그것은 “애국의 큰마음”이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하는 것이며, 개인의 안녕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다.

집단주의의 예는 2016년 9월호 <비둘기네집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집단주의정신을 지닐 때 모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종자를 심고, 동산을 위하여 자기를 바친, 비둘기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글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아빠비둘기처럼 동무들을 위해 자기를 바쳐가는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이 얼마나 있을지를 묻는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잡지를 보는 어린이들에게 조직과 집단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해나가자는 주문을 하고 있다. 나아가 집단주의정신을 생활 속에서 강조하여 각종 단체와 조직을 결성하게 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승리를 강조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만을 실천해나가는 행동지침을 갖게 한다.

4)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 과학기술의 발전

북한에서는 당성과 계급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자본가, 자본가계급, 제국주의 등에 대한 증오를 갖도록 지도한다. 이들에 대한 증오는 사회주의 조국과 노동자 농민 계급에 대한 애착과 애국주의 정신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에서도 “새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선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 본질과 부패상을 똑똑히 인식하며 지주, 자본가 계급과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미워하도록 교육 교양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여 계급투쟁 교육을 앞세운다.

2017년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대륙 간 탄도 유도탄)은 2017년 이후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발사에 성공한 바로 그 날이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기념식을 치르는 날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며,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제국주의를 조롱하는 태도로도 표현된다. 아동의 작품에 등장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탄도미사일 성공에 대한 자긍심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조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7년 9월호에서는 “7월의 하늘가에 련이어 올려퍼진 화성포의 장쾌한 뇌성”이란 타이틀을 달고 8편의 동시를 게재하는데, 모두 축하와 자랑과 자부심을 내세우며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조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 ① “7월 4일/ 우리 평양 하늘에/ 꽃축포 오른 날/ 바다건너 미국땅에/ 비명소리 울린 날// 대륙도 대양도 쌍쌍/ 구름속을 쌍쌍/ 대륙간탄도로켓트/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승리로 새겨진 7월 4일// 제놈들 명절이라/ 《축

배》 들었던 술잔/ 땅바닥에 산산 깨어진 날/ 십자가 그으며 《아멘》/ 꿈
자리 사나와진 날// (중략) 민들레학습장/ 그 칸칸마다에/ 네놈들 활활 태울/
불길같은 5점/ 채워온 우리다// 그 불길 폭발시켜/ 새 로켓꿈을 키우는/
우리의 가슴속에/ 아, 훈장처럼 빛나는/ 7월 4일”(변혜영, <7월 4일>)

- ② “아메리카합중국/ 즐기는 명절날/ 우리가 보내준/ 《선물보파리》// 용암
같은 불기둥/ 세차게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된/ 《화성 - 14》형// 크든
작든 남의것은/ 잘도 뺏아먹더니/ 내 나라의 《선물》 앞에/ 벌벌 떠는
저 꼴 좀 봐// 와 하 - 하하하/ 통쾌하구나/ 소년단원 우리들도/ 만들어보내
자// 침략과 략탈로/ 거만해진 미국놈들/ 단매에 박살낼/ 《선물보파리》”
(<《선물보파리》>, 선교초급중학교 전유정)

①은 작가가 쓴 동시인데, 이 외에도 대륙간탄도로케트 오를 적에 교
실 안 만세소리는 “온 세상이 우러르는/ 제일강국 세워주신/ 원수님께
드리는/ 고마움의 노래”(홍순모, <고마움의 노래예요>)로 표현되며, 대륙간탄
도로케트 오를 때 세계지도 앞에 모여 미국땅을 통째로 날려버릴 기세를
보이는가 하면(문철옥, <세계지도앞에서>), “우리 웃음 빼앗으려/ 날뛰는 놈
들/ 몽땅 찾아 불벼락/ 내릴 로케트”(김성옥, <용감한 불새>)를 자랑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쏘아 올리자 갑자기 자라목이 된 것
같은 미국을 비웃기도 하고(김철, <자라목>), “수십여년 긴 세월/ 제재담벽
쌓았어도/ 하하하 우습네/ 물먹은 담벽됐지//.... 정말정말 통쾌해/ 허둥대
는 미국놈들/ 물먹은 담벽됐지/ 닭쫓던 개신세됐지”(박명재, <물먹은 담벽됐
지 닭쫓던 개신세됐지>), “《독립절》 맞는다는/ 네놈들에게/ 정신 번쩍 차
리라고/ 보내준 《선물보파리》//.... 아직도 미친병/ 낫지 않으면/ 이런
《선물보파리》/ 많이많이 보내줄테다”(송시찬, <많이많이 보내줄테다>), 옛

다 받아라/ 미국놈들아/ 우리가 만든/ 《선물보따리》(리춘성, <옛다 받아라>)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는다.

그들은 혁명정신을 양양하고 적개심을 고취한다는 목적 아래 미 제국주의와 식민화된 남한에 대한 언급으로 비속어가 난무한 작품들을 종종 발표한다. 미국놈, 쳐부수다, 까부시다, 일제놈, 지주아들놈 등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이것은 아동이 쓰는 작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②처럼 “우리교실 글짓기”에 게재된 아동의 동시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발표된다. 그 해 12월호 “우리교실 글짓기”에서도 대륙간탄도로케트 올리는 소리를 “미국땅을 죽탕치는/ 날벼락소리/ 백두산대국의/ 불호령소리”(〈불호령소리〉, 삼천군 달천소학교 우정명)로 표현된다.

“학생작품과 지도평”(2017-12)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박명재는 “(…)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 형/ (…) 밀려드는 핵구름도/ 쳐갈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푸른 하늘 펼쳐주신 원수님(…)(〈만세! 만만세〉, 중신고급중학교 전수연)을 앞세워, “이 모든 기적을 안아온 고마우신 원수님에 대한 환희의 감정으로 승화시킨” 노래로 평하며, 시대와 함께 호흡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칭찬했다.

그러니 북한의 아동은 미래과학자거리에 무지개가 비낀 모습을 자랑으로 우러러보게 된다. 그 거리는 “원수님 사랑 넘친 황홀한 거리”로 불린다. “내 조국 빛내이는 미래를 가꾸가는 과학자 교육자들”이라고 칭송하며 부러워하고 있는(〈간절한 마음〉:2016-1) 글과 유사한 표현도 자주 등장한다. “과학자 교육자들/ 아끼고 사랑하는/ 원수님 그 은덕이/ 정말 크구나”(〈정말 크구나〉:2016-1)고 함께 기뻐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과학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쓰는 것은 영웅 칭호를 내린 횃수에서도 알 수 있다. 2012년 12월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발사가 성공하자 10명

의 과학자와 위성개발 발사 관련자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2013년 2월에도 제3차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뒤 100명의 관계자들에게 영웅 칭호를 내렸으며, 이후 모란봉 악단, 체육인, 과학인들에게 매년 100여명 정도 영웅 칭호가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4. 결론

북한의 아동문학은 북한 체제와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인간형을 창조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아동은 북한 미래의 기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양교육의 대상이 되며, 사회주의 교육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해야 할 대상이다. 즉 아동문학과 관련된 교양의 장에서 정치사상이 핵심이라는 말이다. 『아동문학』에 수록된 작품은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 외에 소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쓴 작품도 상당수 발표된다. 거기에 더해 지상강좌 형식으로 <문학교실>을 싣기도 하고 학생들이 쓴 작품에 대해 평을 내리기도 한다. 학생들이 쓰는 글에 대해서도 동화, 동시라는 장르로 표기하여 생활면으로만이 아니라 작가적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데까지 지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문학상 시상식 소식을 길게 전하기도 하는데, 시상 대상이 성인 작가가 아니라 아동이며 아동이 쓴 문학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지은 문학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소개되고 적극 향유 수용토록 하고 있는 점은 우리와 다른 점이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사물 현상을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일, 거기에 사람의 낯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기질을 꾸준히 숙련하여 자기의

성품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는 데 아동 글쓰기의 뜻이 있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글 잘 짓는 기둥이 되게 하고자 하는 뜻을 보이기도 한다. 아동이 쓴 동시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심장으로 느끼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길이 전하며 높은 실천으로 보답해갈 뜨거운 마음을 지녔기에 작품들에서 ‘종자’를 잡을 수 있었다”(2016-4)고 칭송하기도 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더 높아진 문학실력으로 자신들의 행복 넘친 생활과 북한의 고마운 제도를 노래하는 훌륭한 글들을 쓰라고 주문한다.

『아동문학』에서 아동 글쓰기를 통해 내면화되는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는 먼저 지도자의 이미지를 상징화해나가는 수령형상의 문학으로 다져진다.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는 주체의 태양으로, 해님으로 상징된다. 수령이 해님처럼 아동에게 사랑을 주어 아동은 꽃과 같이 행복하게 자란다는 “해님:꽃”의 도식은 아동 작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그대로이신”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이미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태양으로, 수령으로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고지도자의 이미지 상징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아동문학』을 통해 주체문예이론인 ‘종자론’을 강조하며 계급 교양의 장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성조선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아름답고 씩씩한 모습을 담아야 하는데, 먼저 종자를 찾고 난 후 이야기를 엮어갈 글감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글감을 잡아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하며, 그 마음이 진실하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글을 쓴 아동이나 독자에게 ‘김정일애국주의’를 키우는 일이 되게 한다는 것, 즉 작품의 ‘종자’도 자연스럽게 밝혀나갈 것을 강조한다. 그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아동 작품에서도 시대정신이 반영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아동문학에서 소년단원들의 성적증은 높은 교육열로 나타난다. 그리고 성적과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집단주의정신이다. 북한 정치교육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집단주의에 연유한 것이다. 집단을 중시하는 사상은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집단주의를 종자로, 학급 반과 학교 동무들 모두가 5점꽃을 피울 수 있기를 자랑으로 삼는다. 그것은 “애국의 큰마음”이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하는 것이며, 개인의 안녕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다. 또한 당성과 계급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자본가, 자본가계급, 제국주의 등에 대한 증오를 갖도록 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아동의 작품에 등장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탄도미사일 성공에 대한 자긍심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조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아동문학』이 다양한 잡지 체제를 통해 아동 독자의 이데올로기를 통제하고 형성해나가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내면 갈등을 드러내며 주체적 성장을 가져오는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철저하게 아동의 사상성을 교양교육이라는 방법으로 굳히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동’의 문제는 통일 담론의 중심 과제에 있다. 그럼에도 아동은 언제나 타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들이 내면화된 이데올로기를 영속화 해온 과정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오는 것보다 남한 사회의 적응과정이 더 힘들다’는 북한이탈자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그만큼 아동 시기부터 문학을 통해 사상교육을 한 영향은 오래 갈 것이고, 그래서 통일 이후의 소통을 위해서는 조밀하게 연구하여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단순히 한 민족이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타자성의 이해를 통해 새로운 공통성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치유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진정한 통합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아동문학』, 2014년 1월호 ~ 2017년 12월호.

2. 논문 및 평론

강효순(북한), 「《아동문학》 창간 열 돌을 맞으며」, 『문학신문』, 평양문학: 문학신문사, 1957.7.18.

김성수, 「북한문학, 청년지도자의 욕망-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의 동향과 전망」,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Vol.1, 2014.

김지수,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Vol.23, 2013.

김진만, 「북한 주민의 이데올로기 내면화 기제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국민윤리연구』 제62호.

마성은,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우리어문연구』48집, 2014.

박종순, 「최근 북한 아동문학에 나타난 후대사랑 담론 - 2014~2016년 『아동문학』분석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Vol.32, 2016.

박태상, 「김정은 집권 3년, 북한소설문학의 특성」, 『국제한인문학』16집, 2015.

김경희, 「북한 그림책 『지혜 키우기』에 나타난 인재상과 그 형상화 방법」,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0집, 2017.

최윤정, 「북한 그림책 장르인식과 아동 그림책에 나타난 탈이념성」,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3집, 2018.

손일훈,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진실한 동심적 형상>(『조선문학』 2018년 6월호)

이영미, 「북한 아동문학과 교육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30, 2006.

이지순, 「로동신문 수록 가사의 김정은체제 이미지 연구」, 『세계북한학학술대회 2015』 2, 북한학연구학회, 2015.

장용철, 「김정일의 ‘종자론’과 주체사상 ‘종자’화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12권 제2호(2016)

정교진, 「북한 정권의 ‘지도자상징정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7.

정유철·곽은경, 「김정은 현지도에 나타난 북한의 상징정치」, 『현대북한연구』18, 2015.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

논총』제25집2호

3. 단행본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북한 김정일, 『영화예술론』, 1973.
- 북한 정룡진, 『주체문학전서6 아동문학』,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
- 북한,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 _____,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 _____, 『조선대백과사전』19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 _____, 『조선대백과사전』26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 _____,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이명재,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 이영미, 『북한 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12.
-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 과정, 교과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15.

4. 기타

- <北 시군 도서관 이름은 ‘미래원’> 《노컷뉴스》 2015-01-25.
- <수해지역에 선물만 퍼주는 김정은, 방문은 언제?>, 데일리안 2016-10-29.
- 《北韓》(북한연구소, 2006년 6월호)

Abstract

A Study on The Tendency of Internalizing the Ideology of
The System of North Korean Children's Magazines and
Children's Writing

— Focused on The Periodical Kim Jong Eun's Periodical "Children's
Literature"(2014~2017)

Park, Jongsoon

This study examines the system of "children's literature" issued monthly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hosun Writers Alliance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education in the composition of the magazine in relation to future discourse, And the tendency to internalize the ideology that takes place at the point leading to child writing.

They teach children how to become literary men by calling them "our literary dancers who are decorating children's literature." In addition, by emphasizing that we should take care of our life experience carefully and observe, write, and reflect on it, we can deepen our desperation for the best leaders. Seed, the "ideological grain that embodies the essence of life," defines children's literature as the mainstream literary theory that flows throughout the work and emphasizes the use of ideological texts in children's lives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times.

The political ideology of North Korea, which is internalized through child writing, is first shaped into the literature of the form of the leader who symbolizes the image of the leader. The image of the supreme leader is symbolized by the sun of the subject, the sun, and the sun: the scheme of the flower appears to the child in the artist. And the heat of education that promotes the achievement of the boys is expressed by the collective mind. We are proud to be able to draw 5 points of class and class colleagues with seeds that are always emphasized by children in North Korea.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ldren's works and the pride of ballistic missile success are linked to hostility and mockery of US imperialism.

■ Keywords : "children's literature", Kim Jong-Eun, Subject Ideology, Seed theory, Collectivism, leader figuration, internalize, Political ideology

■ 논문접수일: 2019. 4. 30. / 심사기간: 2019. 6. 2. ~ 2019. 6. 7. / 게재 확정일: 2019. 6. 12.